

깨닫고 나면 지난 수행은 허망한 짓

원래 자기 부처를 깨달을 뿐, 그 위에 다시 보낼 것이 없다.

성품은 늘거나 줄거나 하는 모습이 아니다. 성품이 변화해서 부처도 되고 보살도 되고 성문·연각·벽지불도 된다. 모양이 있는 것도 되고, 모양이 없는 것도 된다.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일체처일체시에 끝없이 나투면서도, 나투되 나툰 바 없이 늘 여여부듯한 본래면목을 잃지 않고 있다.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내려놓으면 그만이다. 다만, 어리석은 곳에 빠져서 허망한 시간을 보냈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렇더라도 본래 마음자리는 돌이킬 수 없어서 늘 여여한 모습임을 믿어야 한다. 인연 따라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 속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선악을 떠난 또 다른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림자인 것을 알되, 허상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지혜롭게 쓴다면, 보다 좋은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행 ⑨



범어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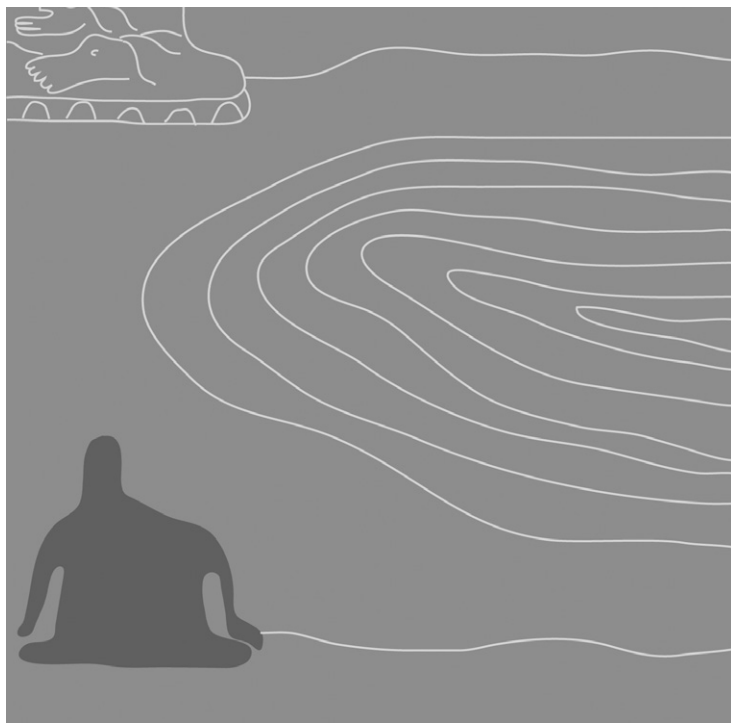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깨닫고 난 뒤에 지난 오랜 세월의 수행을 돌이켜 보면, 모두 공속의 허망한 짓일 뿐이다. 그래서 여백에서는, “내가 아득다라삼삼삼보리에서 실로 얻은 것이 없다. 만약 얻은 것이 있다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고 하셨다.

본래 성품자리는 얻었다 할 것이 없다. 다만 깨달음과 늘 더불어 살았는데, 허망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아는 것이다. 늘 그 성품 자리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연등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지, 억겁의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을 지녔기 때문에 부처가 된 것이 아니다. 수기를 받으려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수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지니고 연등부처님께 증명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부처님들 사이에 수기를 주고받는 모습은 일체 모든 중생들도 부처와 돌이 아닌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를 이루는 것은 억겁의 세월 동안 노력해야 하는 것이므로 나오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현애상(懸崖想)을 낸다면 그것은 오해한 것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것을 보리(깨달음)라 한다.”고 하셨다.

본래 성품자리에는 멀고 가까움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깨닫고 말고 할 것이 없는 본래면목 자리를 등지고 살다가, 그 입장을 한 바퀴 전환해서 늘 함께 했었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제대로 공부한 것인지 아닌지 갈증이 적지 않았는데, 인연 따라 믿음이 커져서 이제 부처님이나 조사들의 가르침을 돌이켜보니까 그 까닭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다.

바로 이 본원정정심은 중생과 부처세계, 산

성품은 늘거나 줄지 않으나

인연따라 천차만별 모습

끊임없이 나투면서도

본래면목은 여여부듯

본원정정심은

법계 평등하여 상이없고

항상 밝아 두루비춘다

‘견문각지’ 마음 삼으면

그것에 덮여 본체 못본다

‘견문각지’ 텅 비워 버리면

즉시 마음길이 끊어져

중횡자재 도량 아님이 없다

해대지, 모양 있는 것과 없는 것 등 시방법계가 다 함께 평등하여 너다 나다 하는 상(相)이 없다.

일체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성품의 바다여서, 이 일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한 적이 없다. 그나마 안목이 바뀌어 듣는 힘을 지니게 된 배후이기 때문에, 활벽스님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눈뜨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런 설명이 아니라 근본분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하는 입장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 본원정정심은 항상 뚜렷이 밝아 두루 비추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여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見聞覺知)’으로 마음을 삼고, 그것에 덮여서 끝내는 정밀하고 밝은 본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의 근원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다. 뚜렷이 밝고 두루 비추어 만물을 제대로 구별하는 마음 바탕이 바로 성품이다. 다만 견문각지 하는 것에 마음이 가려져서, 견문각지 하게 하는 그것을 놓치는 것이다. 아주 미묘한 것이지만,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엄청나다. 본인 스스로가 벗어나지 않고서는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당장 무심하면 본 마음자리가 스스로 나타나서, 밝은 햇살이 공중에 떠오르듯 시방법계를 두루 비추어 장애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 견문각지만을 인지하여 행하고 움직이지만, 이 견문각지를 텅 비워 버리면 즉시 마음 길이 끊어져서 들어갈 곳이 없어진다.

무심하기만 하면 즉시 근본이 드러난다. 그런데 본래 마음자리는 등진 채, 견문각지

하고 있는 이것이 마음이라고 착각한다. 마음을 작용시키는 그 찰나,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날 때의 찰나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벽이 깨지면서 비로소 시절인연이 열리는 것이다. 텅 비워버린다는 것도, 따로 어떻게 비운다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다. 공부의 맛을 즐겼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쉽지 않다. 내버려둔다는 말은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말이다. 공부할 때의 입장은 그렇다 쳐도, 공부한 후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것이 있다. 이런 말을 소화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힘들다고 하는 그것이 힘든 것이므로, 그것도 내려놓아야 한다. “어떻게 내버려두는 것입니까?” 할 때, “나도 몰라. 알아서 해!”라고 하면, 당장 무책임한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무책임한 말이 아니다. 책임진 입장에서 바로 찢어서 정확하게 드러낸 것이다.

다만 견문각지 하는 곳에서 본심을 인식할 지라도, 본심은 견문각지에 속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떠나 있지도 않다. 견문각지 하는 가운데, 견해를 일으키거나 생각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또한 견문각지를 떠나 마음을 찾아서도 안 되고, 견문각지를 버리고 법을 취해서도 안 된다. 그리하면 죽(儻)하지도 않고 여의지도(離) 않으며, 머물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으며, 중횡으로 자재하여 어느 곳이든지 도량(道場) 아님이 없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마음을 찾으려고 애쓴다. 이 마음이 곧 부처다. 다른 곳에서 부처를 찾으면 안 된다. 일체처일체시가 성품과 함께하는 청정도량이다. 늘 청정도량에 머물면서 방편을 세워야 한다. 있는 도량을 등지고 없는 도량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음을 저지레하지 말아야 한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㉞



실로 수보리여, 보살의 길에 나아간 자는 대상에 머물러서 보시를 행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금강반야바라밀경〉

월교교훈

1999년 8월 24일, 인도 델리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침 일찍 우리 가족은 라즈가트(Raj Ghat)를 찾았다. 마하트마 간디가 암살당해서 화장한 곳인데, 그 후 공원으로 꾸며놓았다. 라즈가트를 둘러보고서, 다시 한번 더 간디의 삶과 가르침을 돌아보라는 뜻인지 그 맞은편에 ‘간디 기념관’이 있었다.

라즈가트로 간디기념관으로 발품을 팔다보니, 어느덧 배가 고파온다. 식당을 찾아가기로 하고, 지나가는 사이클릭사(자전거가 끄는 인력거)를 잡아 탔다. 우리 가족 3인을 태우고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페달을 밟는 릭사왈라(사일)를 릭사의 운전사)를 보는 우리 마음이 편치 않았다.

우리가 누구인가. 인정 많은 한국인 아닌가. “탑으로 2루피 더 얹어주자”고 합의했다. 원래 10루피니까, 12루피를 주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선한 마음을 내었다. 그런데 식당 앞에 도착해 돈을 치우려 하니, 그는 돈을 안 받는다. “30루피”라는 것이다. 아까 “10루피”라 한 것은, “1 사람에게 10루피”라고 하는 것이었다.

저 밑에서 팔뚝만한 불기둥이 치솟는다. 인도로 갔다 온 여행자들이나 여행 안 내서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많은 체험담이 있다. 그리고 대처법까지. “돈을 그냥 릭사 위에 올려놓고 가면 된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 정말 진실로 30루피를 받는 것이 맞았다고 한다면, 어떻게라도 그 릭사왈라는 우리를 따라왔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시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30루피를 받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역시 “안 되면 말고” 식이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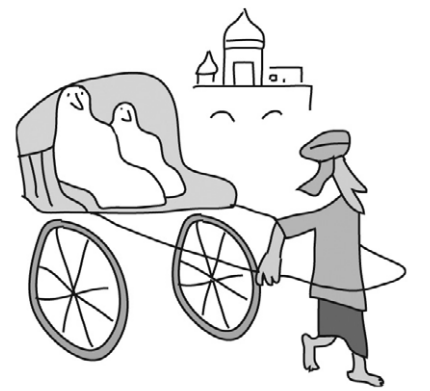
식당에 도착해서 땀을 닦고 나니, ‘아차’ 실다. 12루피를 놓고 왔어야 했던 것이다. 12루피를 주자고 했으면서도, 그가 우리를 속이려고 했다는 그 사실에 ‘꽤 씹죄’를 걸어서 그만 10루피만 주고 말았던 것이다.

만약 내가 12루피를 주고 내렸더라면, 나는 그러한 ‘대상에 머물지 않고서 보시를 행하는’ 보살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이날의 일을 ‘알라로부터 얻은 교훈’이라는 의미에서 ‘월교교훈’이라 부른다.

〈금강경〉의 주제, 보시
〈금강경〉은 사실 주제 파악이 쉽지 않

은 경전이다. 도움이 되는 것은 역시 경전의 내용을 분류하면서 읽어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읽는 〈금강경〉은 제1 범화인 유분(法會因由分, 법회를 열게 된 인연) 등으로 이름이 주어져 있다. 32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중국 양(梁)나라 무제의 아들인 소명(昭明)태자가 그렇게 한 것이다.

널리 유통되기는 하지만,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도 없지는 않다. 대표적으로 제3 대승정종분(大乘正宗分, 대승의 핵심)과 제4 묘행무주분(妙行無住分, 걸림없는 행은 상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을 나눈 것이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중간에 딱 잘라놓은 것이다. 그 부분은 함께 생각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제3분과 제4분 부분을 하나로 합치게 되면, 그 부분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는 것이 좋을까? 대승정종분이라 해도 좋고, 묘행무주분이라 해도 좋을 것 같다. 형식적으로는 대승정종분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묘행무주분일 터이다. 즉 대승의 핵심은 바로 묘행무주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금강경〉의 주제는 “상에 머물지 않는 것”이라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기 보다는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묘행”이 앞서고, 그 묘행을 근거지우며 가능케 하는 것을 “무주”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불교논리학에서 볼 때, 묘행은 주제(宗, 제시)이고 무주는 이유(因, 근거)이다. 정작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먼저 ‘종’에서 제시한다. 그리고 〈금강경〉의 경우, 그것은 ‘묘행’이고, ‘보시’이다. 그런데 그것을 ‘대상·법에 머물지 말고’ 하라는 것일 뿐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 번 질할 때 마다 한 알씩 켜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내 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

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꿸 때 되면 염장은 멀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줄삼색, 코핀1개, 펜던트, 이부사계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부사계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직구멍이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 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헝겊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직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직구멍에서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펜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펜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직구의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헝겊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더로 살짝 지지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심원스님터하출원
20-2011-00036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다함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